

화성두레보존회와 함께하는
제 4회 동서악회 정기연주회

우리가락
세계 路 날다

이 복 남

김 광 희

최 영 아

이 애 련

음악감독 길 석 근
소 리 안 병 선

2014. 11. 12(수) 7:30PM 용인여성회관 큰어울림 마당

주최 / 주관 : 동서악회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후원 :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사) 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 우리가락교육연구회

화성두레보존회와 함께하는 제 4회 동서악회 정기연주회

인사말



어느덧 대지의 열매들이 결실을 맺어가는 가을 끝자락에 열리는 제4회 동서악회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정기연주회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서악회는 한국음악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우리의 음악을 창작하고 발전시키고자 현대음악 작곡가들과 전문국악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동인단체입니다. 2011년 3월에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창단 연주회를 가진 후 매년 정기연주회 뿐 아니라 러시아(Vth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모스크바, 2011), 일본(Clumusica: Present of Orchestral Asia, 교토, 2013), 중국(중·한 교류음악회, 광저우, 2014)과 교류하면서 한국전통음악과 창작국악을 세계에 소개하고 진정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한국음악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4회 정기연주회는 우리의 농악장단과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소리를 새롭게 재해석하여 작곡한 곡들을 화성두레보존회와 함께 재현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소개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특별히 올해 유네스코 무형유산 심사위원회가 농악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를 추천하였다 는 낭보를 듣고 헤戚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한국인들과 함께 했으며 이제는 전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게 될 농악을 주제로 하는 오늘의 연주를 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연을 위해 좋은 곡을 작곡해주신 선생님들, 기꺼이 연주를 맡아주신 선생님들, 준비를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리와 재현을 맡아주신 화성두레보존회의 안병선이사장님과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서악회 회장 이복남



땅과 하늘, 곡식과 열매를 벗삼아 살아온 지난 60여년의 세월, 제 결을 지켜준 또 하나의 소중한 친구는 우리의 가락과 소리였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하늘을 우러르고 땅과 호흡하며 논과 밭에서 일하며 불러제끼던 소리, 또는 한숨 돌리며 막걸리 한잔의 흥에 취해 두드려 대던 가락을 이제는 더 이상 들녘에서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가락과 소리가 좋아 화성두레보존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뜻있는 이들과 함께 화성두레의 전승과 보존에 힘쓰던 과정에 부족한 제 가락과 소리를 이렇듯 훌륭한 작품으로 승화시켜 주신 동서악회 작곡자 분들, 연주자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뜻 깊은 무대에 서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그 시절 삶의 모습을 전부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서로 돋고 더불어 살아가던 두레정신이 담긴 우리의 전통가락과 소리가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고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울려주길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 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 이사장 안병선

◎◎◎ 프로그램 ◎◎◎

사회_신현경

이복남

타악4중주를 위한 “가락타(打)고(鼓)”

지휘_신봉주 / 타악1_박영록 / 타악2_김병선 / 타악3_안평강 / 타악4_최성철

김광희

* 소리와 국악앙상블을 위한 “꽃상여”

지휘_길석근 / 소리_안병선 / 받는소리_허정임 강하경 정은정 / 대금_김규환
피리_연홍관 / 해금_고요한 / 25현금_이해정 / 아쟁_박영신 / 타악_박경진 황삼열

Intermission

최영아

* 두레굿 1. “지경다지는 소리”

지휘_길석근 / 소리_허정임 / 받는소리_강하경 정은정 / 대금_문응관
피리_연홍관 / 해금_고요한 / 아쟁_박영신 / 타악_박경진 황삼열

* 두레굿 2. “모심는 소리”

지휘_길석근 / 소리_허정임 / 받는소리_강하경 정은정 / 대금_문응관
피리_연홍관 / 해금_고요한 / 가야금_이지연 / 타악_박경진 황삼열

이애련

* 소리와 국악 앙상블을 위한 “和”

-김매기를 바탕으로-

지휘_길석근 / 소리_안병선 / 받는소리_허정임 강하경 정은정 / 대금_김규환
피리_연홍관 / 해금_고요한 / 가야금_이지연 / 타악_박경진 황삼열

재현 : 화성두레보존회

상쇠_심명숙 / 징_김한결나 / 장구_한상은 / 북_강으뜸

벽구_황지현 황지원 심민우 강영호

농사굿_곽장호 김성자 이경희 최혜자 김주희 오채빈



이복남

· 이복남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Rutgers University 대학원을 졸업(Ph.D.)하였다. 3회에 걸친 작곡발표회를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루마니아, 영국, 뉴질랜드 등 국내외의 여러 음악제에서 작품이 연주되었다. 현재 (사)한국작곡가협회 사무총장, 동서악회 회장, 한국예술가곡연합회 부회장, (사)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 자문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명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타악4중주를 위한 “가락타(打)고(鼓)”

“가락타(打)고(鼓)”는 우리나라 국악장단을 다양한 서양 타악기의 음색과 현대적 음악어법으로 새롭게 표현해보고자 시도한 작품이다. 초연에서 Mbira가 연주한 선율 부분을 이번에는 서양건반악기가 연주한다. 전체적인 구성은 호남 우도농악, 영남농악, 경기웃다리농악 등 우리의 판굿이나 삼도의 대표적 농악가락들의 구성에 따라 3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오채질굿, 길군악, 찍찍이 가락과 같은 삼도의 특징적 장단들이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며 연속적으로 연주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동시에 연주하기도 한다. 지금부터 가락을 타고 동·서·남이 하나 되어 신명나는 삼도 여행을 떠나보자 한다.



김광희

· 김광희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Minnesota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작곡과 이론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명지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양대에 출강하고 있다. 또한 운지회 회장, 통영국제음악제단이사, 동서악회 감사, 한국작곡가협회이사, ISCM 한국위원회와 (사)ACL-Korea 이사, 창악회 회원, 하트-하트재단과 콜렉션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소리와 국악양상불을 위한 “꽃상여”

안타깝게도 우리의 전통 문화 중 상당수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상여소리이다. 이젠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쩌다 들을 수 있는 상여소리는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려 갈 때 소리꾼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 사라져 가는 상여소리를 무대 위에서 연주 형태로 재현하려는 시도로 이곡을 쓰게 되었다. 원래 긴 시간을 요하는 소리지만 연주곡 형태로 만들기 위해 가사 중 좋은 내용을 선정해서 짧은 시간을 줄였다.

3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곡은 계속 반복되는 노래 선율이 여러 장단으로 변하며 국악기들과 어우러져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첫째부분은 행여 소리로 망자의 다시 못 올 곳으로 떠나는 서글픈 심정을 진양조와 중모리로 표현하였고, 둘째부분은 달공소리로 망자가 남은 자식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애절한 심정을 중중모리로 표현하였다. 굿거리의 간주를 거쳐 시작되는 마지막 부분 역시 달공소리로 좋은 곳에 묘자리를 잡아 후손들이 잘 되기를 기원해주고 집터를 닦으며 하는 소리를 자진모리로 표현해 보았다. 이 곡을 준비하며 알게 된 사실은 그 동안 다소 듣기 꺼려졌던 상여소리의 가사가 너무나 우리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옛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고 아울러 이런 훌륭한 우리의 전통이 사라지지 않고 잘 보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최영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 독일 차브뤼켄 국립음대를 졸업하였으며, 백병동 교수와 Prof. Theo Brandmueller(테오 브란드뮐러 교수)를 사사하였다. 국민대, 서울대, 성신여대, 추계예대, 충남대 등의 강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운지회, (사)한국여성작곡가회, ISCM 한국지부, 동서악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 예술의전당 영재아카데미에 출강하고 있다.

두레굿 1. “지경다지는 소리”

“지경다지는 소리”는 새집을 짓기 위해 집터를 다지는 작업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이며, 선소리꾼이 앞소리를 매기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노동요이다.

이 작품에서는 경기도 화성 지방에 전승되어오는 지경다지기 가락을 중심으로 기악반주를 더하여 연주형태의 작품으로 재구성하여 보았다. 진양조의 느린 가락으로 시작하여 무장단으로 축문 낭독과 제사의식을 표현하였고, 본격적인 지경다지기에서는 원가락인 굿거리장단을 중심으로 하되 반복되는 선율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악기들의 음색으로 변화를 주고자하였다.

두레굿 2. “모심는 소리”

“모심는 소리”는 논농사와 관련하여 공동노동 때 부르는 노래로 지경다지기 소리와 마찬가지로 매기고 받는 형식의 노동요이다. 이 작품 역시 화성지방에 전승되어오는 모심기 가락을 원가락인 굿거리 장단을 중심으로 재구성 하였다.

노래를 통하여, 힘들고 단조로운 작업의 고단함을 덜어내고, 일의 능률을 높이며, 협동심을 북돋우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삶을 돌아보며, 전통을 통해 미래를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애련

작곡가 이애련은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중국 북경 중앙음악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에 출강하고 있고, 중국 우한음악원 작곡과 객좌교수이다. 동서악회, 한국여성작곡가협회, 창악회, 소리목, 아시아작곡가연맹, ISCM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리와 국악 양상을 위한 “和”

-김매기를 바탕으로-

두레굿은 농부들이 흥을 돋우고 피로를 덜기 위하여 두레를 짜서 김매러 갈 때나 김멜 때, 그리고 김매고 돌아올 때, 또한 호미걸이와 같은 축제를 벌일 때 치는 농악으로, 일명 ‘두레풍장’이라 한다. 경기농악은 농경적인 동작을 연희하는 농사굿이 있다. 두레패들은 농신에게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농기를 앞세우고 김매러 갈 때, 그리고 김매고 돌아올 때 풍장을 치는데, 고장에 따라서는 흥을 돋우고 피로를 덜기 위하여 김멜 때에도 친다. 이 곡은 두레굿 중 김매기 부분으로서 농사를 기원하는 도입부가 첨가되고, 농부들이 농사일을 모두 다 끝내고 추수 할 시기를 기다리며 축제를 벌이는 우리의 전통 두레굿의 모습을 동작으로 재현하며 연주하게 된다. 이 곡은 우리 고유의 음계와 장단, 다양한 동, 서양 현대연주기법을 가미하여 동, 서의 화합된 음향과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의 다양한 변형장단으로 흥겹고 구성진 느낌을 주는 것이 특색이다.



소리: 안 병선

- 제 63회 개천예술제 종합대상 및 최우수 연기상
- (사)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 이사장 겸 보존회장
- 우리가락 교육연구회 자문위원
- 동서악회 자문위원



지휘: 길 석근

- 추계예술교육대학원 겸임교수
- 동서악회 부회장
- 우리나라교육연구회 회장
- (사)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 자문위원



소리: 허정임

-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이수자
- 명지대 교육대학원 출강
- 전통예술학교, 국립국악중학교 출강
- 동서악회 회원



대금/소금: 김 규환

-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대금: 문 용관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박사수료
- 국립국악원 정악단 수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동서악회 회원



피리: 연홍관

- 한국피리음악연구회 회원
- 국립전통예술학교 출강
- 추계예술대학원 출강
- 동서악회 회원



해금: 고요한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악학과 수료
- 제 23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해금부문 은상
- 제 26회 동아 국악콩쿠르 해금부문 금상
- 국악 중 고등학교 해금강사



가야금: 이해정

- 제23회 중요무형문화재 가야금 병창 및 산조 전수자
- 용인대학교 출강
- 경기가야금앙상블 대표 및 동서악회 회원



가야금: 이지연

- 탄금대 가야금경연대회 대상
- 서원대학교 음악학과 겸임교수
- 숙명가야금연주단 이사 및 동서악회 회원



아쟁: 박영신

-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 졸업



타악: 박경진

-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
-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 국립국악학교 강사



타악: 황 삼 열

- 제13회 전국우다리농악 경연대회 최우수 연기상
- (사)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 예술감독
- 동서악회 회원



서양타악: 신봉주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독일 Trossingen 국립음대, Detmold 국립음대 졸업
- Compass 타악기 앙상블 음악감독
- 프레미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받는소리: 강 하 경, 정 은 정



콤파스타악기양상을

김병선, 안평강, 박영록, 최성철



(사) 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

(사)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약칭: 화성두레보존회)는 급속도로 개발이 이루지는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져 가는 화성지역의 독특한 가락과 소리를 조사 발굴하여 조상들의 두레정신을 선양하고 후세에 널리 전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설립되었다. 화성 각 지역에 산재되어 명맥을 이어오던 화성두레 소리를 발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시키고 이를 다시 화성전역에 전수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